

‘밸런타인데이’ 맞아 “영화관 데이트 어때요?”

‘캡틴 아메리카 4’ 예매율 1위
오스카 유력후보 등 신작 개봉
“커플 관객 공략” 재개봉 ‘눈길’
광주극장 등 영화 선택 폭 넓어

밸런타인데이는 3세기(269년) 로마시대에서 유래됐다. 당시 결혼은 황제의 허락 아래 할 수 있었는데, 밸런타인(Valentine)은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을 시켜준 죄로 순교한 사제의 이름이다. 그가 순교한 뒤 이날을 축일로 정하고 해마다 애인들의 날로 기념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날로도 유명하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등과 함께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그간 미뤄왔던 극장을 찾아 영화 한편 관람해 보는 건 어떨까. 밸런타인데이(14일)가 끼어드는 주간을 맞아 다양한 장르의 대중영화와 시네필들의 발길을 재촉할 예술영화가 스크린을 수놓는다.

●골라 보는 재미 가득... ‘멀티플렉스 극장’
11일 영화계에 따르면 밸런타인데이 주간을 맞아 멀티플렉스 극장 3사(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에서는 액션, SF, 드라마,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일제히 개봉·재개봉한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작품은 12일 개봉하는 마블의 신작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다.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로는 지난 2016년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이후 9년 만의 후속작이다. 이 작품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집계하는 예매율 압도적 1위(43.4%·11일 기준)에 오르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날 밸런타인데이에 맞춰 로맨스 장르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500일의 찜매’ 등이 재개봉하며 커플 관객들을 맞이한다. 신작 외에도 앞서 개봉한 ‘히트맨’, ‘검은 수녀들’, ‘서브스틴스’, ‘하얼빈’, ‘브로큰’ 등이 상영을 이어가며 관객몰이에 나선다.

●시네필들의 공간서 펼쳐지는 영화 여행
1935년 개관해 현재 국내 유일한 단관극장으로 남은 광주극장과 대중영화보다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며 마니아층에 명소로 손꼽히는 광주독립영화관에서도 이번 주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시네필들의 선택 폭을 넓혀줄 예정이다.

광주극장에서는 각종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다음달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유력 후보로 떠오른 ‘블루탈리스트’를 12일부터 선보인다.

브래디 코베 감독이 연출하고 애드리언 브로디, 펠리시티 존스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30년에 걸친 한 인물의 연대기를 215분의 러닝타임에 담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정착한 헝가리 출신

유대인 건축가의 이야기를 격동적으로 스크린에 구현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열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뒤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3관왕(작품상·감독상·남우주연상)에 오르며 입증한 작품성을 흥행으로 이어갈지 주목된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아버지의 주취 폭력을 피해 가출한 소년 이 수배 중언 고려대 운동권 학생을 우연히 만나 펼쳐지는 1987년 봄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정들이’를 12일부터 상영한다. 이 작품은 당시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로 격랑에 휘말린 대학가에서 드라마틱한 세월을 보낸 실존 인물 송귀철을 조명해 개봉 전부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영화계는 ‘밸런타인데이 특수’에 대해 난감하면서도 일부 대작 영화들이 힘을 써줄길 기대하는 눈치다.

이날 만난 영화계 관계자 A씨는 “최근 대형 흥행작들이 부재해 배급사들이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밸런타인데이가 휴일도 아니라 여러 신작들이 개봉하는 이번 주에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기념일에 맞춰 연인, 가족, 친구끼리 영화를 관람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캡틴 아메리카’ 신작을 통해 올해 극장가 성황의 포문을 열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대담미술관에서 열리는 ‘세계일화’ 전시에 선보인 박정용 작가 작품. 대담미술관 제공

조각 예술 사제간의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다

청출어람 프로젝트 ‘세계일화’
내달 23일까지 대담미술관서

담양 대담미술관은 오는 23일까지 청출어람 프로젝트 ‘세계일화’ 전시를 연다.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전통에서 비롯된 혁신과 진화를 조명하며 세대 간의 예술적 소통을 담아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은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자가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의미를 현대 미술의 맥락에서 재조명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로 작가(스승)인 김대길, 박정용의 전통적 기법과 철학이 단단한 뿌리가 되고, 신진 작가(제자)인 박기태, 김세진, 권윤지, 박세현은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펼쳐냈다. 관람객들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예술의 장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여섯 명의 작가가 창조한 작품들은 더 푸른 빛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스승과 제자의 조화로운 예술적 도약을 기대케 한다.

전시 기간 중 특별 행사로 12일 오후 3시 대담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 연계 아티스트 토크쇼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가들이 직접 작품 과정과 사제간의 계승 및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최아영 대담미술관 부관장은 “이번 전시는 사제간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대 간 예술적 교류를 촉진하는 자리”라며 “조각 본연의 의미를 탐구하며 순수한 열정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깊이와 감성을 느껴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참여기관 모집

전국 곳곳 찾아 미디어체험 제공
내달 7일까지 이메일로 서류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센터)는 도서·읍·면 지역민과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11일 광주센터에 따르면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체험은 방송장비를 갖춘 이동형 스튜디오 차량을 활용해 장애인, 도서산간 지역 등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다양한 방송 제작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총 866회의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미디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모임 △지역 행사 운영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다. 특히 도서 및 읍·면 지역의 기관을 우선 선정해 해당 지역의 미디어 소외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가능하며 신청하는 기관·단체·모임은 광주센터가 지정한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8일에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미용실 머리카락 활용한 이색 전시... ‘모발로 산수화를 그리다!’ 展

21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미용실에서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활용해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이색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11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전시 ‘모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센터)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의 참여기관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로 산수화를 그리다!’는 오는 21일까지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열린다. 김다현 명장이 선보이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머리카락을 모아서 염색하고 가루로 내 독특한 질감을 회화작품으로 표현한 16점이 전시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미디어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디어나눔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교육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체험 기회

를 제공하고,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철호 광주센터 이사장은 “미디어나눔버스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가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미디어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운영·체험 기회 확대 등 더욱 많은 지역민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의 신청 방법과 자세한 일정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www.kcm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머리카락이란 독특한 재료를 활용해 산수화를 주제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단순하면서도 섬세하게 묘사했다”며 “여백의 공간이 흑과 백으로 조화를 이뤘다”고 평했다. 박찬기자